

특 집



## 종오리 개량 사업의 현주소

### 국내 종오리 사육현황과 실태

#### 서 언

최근 농업분야의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는 종자산업은 그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97년 IMF 사태로 대부분의 종묘회사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 모든 가입국가에게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자게게 일정 기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작물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7개 지정하였고 지난 12월말 현재 155개 작물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작물의 증식하거나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보호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장미의 경우 묘목당 1,400원, 딸기의 경우는 '07년부터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축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종 역시 머지않아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라 일정량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한우를 제외한 축종에서 외국육종회사에게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오리 개량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모르나 국내 오리 산업이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자개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국내 사육중인 오리의 주요품종

지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 사육중인 오리의 품종은 중국이 원산인 페킨종 오리 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오리고기 소비량의 80% 내외가 이 품종에서 생산된 육용오리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 사육되는 품종은 개량청둥오리 즉, 야생청둥오리와 페킨종오리, 카키캄벨종오리, 르왕등이 교잡된 교잡종과 일명 기러기라고 일컬어지는 머스코비오리, 카키캄벨종오리 등이 일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개량청둥오리가 차지하고 머스코비 및 카키캄벨종오리는 아주 미미한 양이 사육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1 국내사육중인 오리의 주요품종>

품 종	주요 사육현황	비 고
페킨종오리	국내 육용오리의 80%차지	추 정
토종오리	국내 육용오리의 18%차지	추 정
머스코비오리	국내 육용오리의 1%차지	추 정
카키캄벨	산란용으로 일부 사육	추 정

### 종오리 사육현황

국내 종오리 사육수수는 육용오리 시세에 따라 생산량이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사육되는 종오리 사육수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판매되는 산란사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육된 종오리 추정 사육수수는 <표1>과 같다.

즉 수입개방 이후 매년 증가하던 종오리 사육수수는 97년말 IMF를 맞으면서 98년도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 기준으로 월평균 13만수 까지 사육물량이 줄어든 이후 9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01년도 최대 사육수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합사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종오리 사육수수는 2백만6천수로 이는 월평균으로 16만7천수의 산란 종오리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하여 98년도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는 1백55만9천수 월평균 13만수로 줄어들었고 당해연도 육용오리 및 새끼오리 가격폭등에 의해 99년도에는 2백34만8천수에 해당하는 사료가 판매되어 월 평균 19만6천수의 암컷 종오리가 사육되어 전

년 동기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00년부터 '02년도 까지 산란종오리 사료 판매량은 2백30만수에서 2백50만수에 해당하는 사료가 판매되어 암컷 종오리 월 평균 사육수수가 19만8천수에서 23만수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의 오리업계 경기불황의 주 요인이 생산량 확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오리업계의 장기불황여파로 '03년도의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는 19만8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고, '04년도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및 배합사료가격 폭등으로 17만9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05년도 1/4분기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는 22만7천수로 전년대비 27%, 전년 같은 기간의 사육추정물량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2 종자오리 년도별 사육량 변화>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1/4)
산란사료 판매량(톤)	18,218	14,136	21,226	23,012	24,924	24,692	21,230	18,948	5,807
암컷종암 사육량 (천수)	2,006	1,559	2,348	2,380	2,762	2,736	2,371	2,153	682
암컷월평균 사육수수	167	130	196	198	230	228	198	179	227
종합월평균 사육수수	200	156	235	238	276	274	238	215	272

### 종오리 사육 실태

국내 사육중인 종자용 오리는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80%내외가 중국이 원산인 페

킨종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페킨종 오리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육종회사에서 개량된 종자오리를 도입하여 종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육종회사의 상품명에 따라 체리벨리 SM2-3, 그리므드 스타 63, 52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페킨종 종자오리는 지난 '01년까지 일부 종오리 사육장이 매년 일정물량의 PS를 도입하여 종자오리로 사육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화장은 여기서 생산된 상업용 오리를 분양받아 종자오리로 이용하여왔다.

또 '01년도 충남에 소재한 화천부화장에서 영국 육종회사의 GPS를 도입하여 그해 10월부터 PS를 생산하게 되었고 자체 종자오리 사육물량의 대부분을 PS로 교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화장은 '02년도 한 계열업체에 해당 사업을 매도하였고 그해 이 계열화업체에 소속된 위탁종오리 사육농장들의 대부분

은 GPS에서 생산된 PS로 종자오리가 교체되어 사육되었다. 이 물량은 국내 전체 종오리 사육물량의 40%내외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03년도 12월 조류인플루엔자 발

생으로 국내 유일한 GPS 종자오리의 전량이 도태되었고 '04년도 사육중인 종자오리 PS 비중은 10-20%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사육중인 타 품종 종오리의 경우

토종오리 일명 청둥오리로 불리우는 종자를 이용한 새끼오리 생산은 이 품종 고유의 혈통이 아닌 야생청둥오리와 카키캠벨종오리, 페킨종 오리 등이 혼혈된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오리는 체구가 작은 형태의 유색종과 체구가 큰 유색종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체구가 작은 유색종은 식용란을 생산하거나 오리농법에 이용되는 새끼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고 체구가 큰 유색종은 육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외 일명 기러기라고 불리는 머스코비 종오리는 미미한 양이 사육되고 있고 산란을 목적으로한 카키캠벨종 오리 역시 미미한 양이 사육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종오리 사육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 서 언

국내 오리업은 지난 91년 수입이 완전자유화된 이후 사육물량은 물론이고 오리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이 가능한 축종으로 입증되고 있다.

즉 농림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리 생산액은 수입개방당시인 91년 223억원에서 지난 03년에는 5,290억원으로 2,372% 성장하여 해마다 182% 고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체 축산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전체 축산생산액 4조4천71억원 대비

0.5%에 지나지 않던 비중이 03년 축산생산액 8조8천6백96원 대비 6%까지 늘어났다.

오리 산업의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기능성 축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육류소비 변화와 외식소비 문화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 산업 성장과 사육물량 확대에 따라 종오리 사육물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생산액 역시 크게 증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종자오리 사육의 문제점

오리 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세계시장이 하나로 묶여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오리산업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종오리 개량문제는 국내 오리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종오리 사육실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종자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종자오리가 상업용 오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하나로 꼽히고 있다.

<표1>은 협회가 집계하고 있는 주요 종오리 사육농장별 새끼오리 생산량을 집계한 자료이다. 물론 이 자료는 지난 3월중 사육되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전체 종오리 사육농장의 생산지표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참

고 되지 않아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조사 부화장 18개 부화장에서 사육되는 암컷 종오리 수수당 월간 새끼오리 생산수가 12.1수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종오리 수수당 새끼오리 생산수수는 외국의 종오리 육종회사에서 제시하는 PS 종오리의 월간 새끼오리 생산수수 21수에 비해 생산성이 58%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오리 사육농장의 생산성 저하는 종자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새끼오리 생산비가 높아져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새끼오리 구입농장의 구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육용오리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상대국과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상업용 오리를 이용한 새끼오리 생산은 육용오리 사육농장의 성장률, 사료효율이 낮아지고 출하되는 오리의 균일도가 떨어져 육용오리 사육농장의 생산비 과중요인이 되고 있다.

한 계열업체 생산관련자에 따르면 일반 상업용 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와 PS에서 생산된 육용오리의 생산비 차이가 수당 400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 상업용 오리에서 출하된 육용오리는 PS에서 생산된 육용오리에 비해 가슴살 비율이 낮아져 고품질 육용오리 생산을 지향해야 하는 유통업계 및 오리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농장의 경영생산성 이외에 종오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축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종축에 대한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개량 방향을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자와 시설에서 새끼를 생산토록하고 있다. 이는 그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생될 수 있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오리는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품질과 생산성, 종자오리에 대한 질병관리와 상관없이 종자오리를 사육하고 여기서 생산된 새끼오리가 농가에 입식되어 육용오리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부화장은 품질 좋은 새끼오리 생산을 위한 노력이나 목표 없이 종자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고 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화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품질이 저하된 새끼오리가 농가에 분양되어 농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종자오리 사육에 대한 시설개선이 안되고 질병관리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종란을 생산하여 여기서 부화된 새끼오리가 농장에 분양되어 질병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부화장 농장간의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종오리 개량 사업의 현주소

〈표1 부화장별 종오리의 생산성〉

구 분	부 화 장 명	종축수수	새끼생산량	평균생산수	생산지수(%)
		암 컷			
1	A사	2,500	44,000	17.6	140
2	B사	12,850	180,600	14	111
3	C사	5,650	64,070	11.3	90
4	D사	20,350	255,800	12.5	99
5	E사	8,000	119,900	15	119
6	F사	8,600	135,100	15.7	125
7	G사	2,500	6,000	2.4	19
8	H사	6,800	102,300	15	119
9	I사	2,700	21,000	7.9	63
10	J사	4,700	24,000	5.1	40
11	K사	12,000	153,800	12.8	100
12	L사	2,700	25,650	9.5	75
13	M사	12,000	85,700	7.1	56
14	N사	2,000	14,400	7.2	57
15	O사	4,000	49,500	12.3	98
16	P사	3,200	32,000	10	79
17	Q사	15,000	142,100	9.5	75
18	R사	16,000	258,800	16	127
계		141,550	1,714,720	12.1	96

\* 3월 18개 부화장이 보고한 종오리 사육수수, 새끼오리 생산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 생산지수는 평균 산란율, 부화율 65%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

\* 종오리 육종회사의 PS 종오리 새끼오리 월간 생산수는 21수

〈표2 년도별 새끼오리 생산변화〉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4)
새끼오리 생산수 (천수)	26,550	18,431	26,089	30,325	34,923	34,645	27,512	27,892	7,799
월평균 생산수 (천수)	2,212	1,536	2,174	2,527	2,910	2,887	2,292	2,324	2,599

## 해결과제

오리 종자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품질 좋은 새끼오리 생산을 통한 국내 오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계대가 확인되는 종자오리에 대한 공급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종자오리 사육농장들의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생산자단체인 협회는 지난 97년부터 종자오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03년에는 부회장들과의 합의에 의해 종오리 개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며 조만간 법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근간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이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제11조의 4 (축산업등록의 절차 및 기준)2항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등의 기준에 종오리업의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현행 종축업 중 종계업의 기준에 별다른 조치 없이 종오리업을 추가하면 된다.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제5조 종축업의 대상에 오리를 포함시켜 검정결과 종오리로 확인된 오리는 종축업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토록 하여 종오리로 확인된 종자에서만 새끼오

리를 생산토록하여 새끼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생산성이 높은 종오리만 육성사육토록하고 또한 일정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생적인 종오리만 사육케 하여 질병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입되는 종오리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능력검정을 시행하여 어떤 회사의 종자오리가 능력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종자오리 구매 시 구매지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오리업계에 당면한 상당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